



ISSUE BRIEFING

전북특별자치도 생태·환경자산 가치 창출과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녹색복원 당면과제 제안

연구책임 천정윤 연구위원

이슈브리핑 vol.311

연구진 배진아 전문연구원

전북특별자치도 생태·환경자산 가치 창출과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녹색복원 당면과제 제안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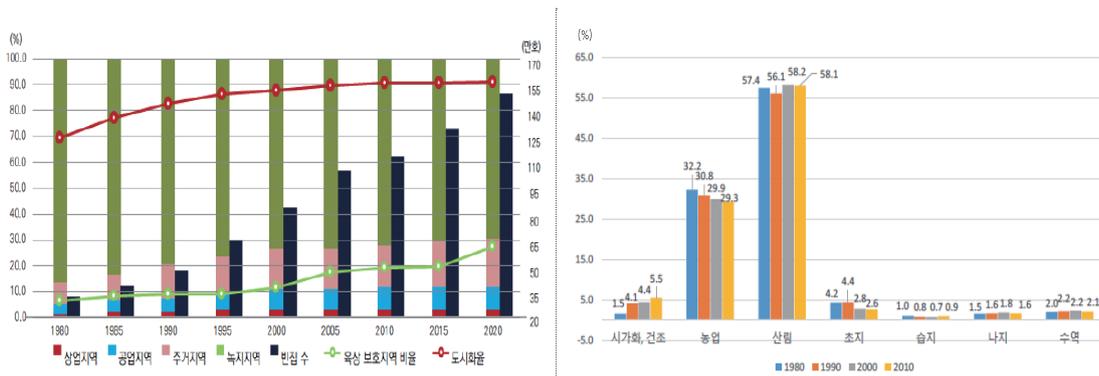
- 세계적인 산업화와 도시성장 가속화로 산림·습지 등 자연공간이 감소하면서 생물다양성과 생태·환경자산이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국적으로 도시화율이 증가하면서(2020년 92%)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은 지난 30여 년간 2~3배 증가한 반면 산림과 농경지역은 감소했다. 전북 지역도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생태·환경자산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 이에 최근 국제사회는 훼손된 생태·환경자산을 양적으로 늘리고 질적으로 회복하는 구체적인 생태환경 복원 목표를 수립하고, 지역사회가 적극 참여토록 요청하고 있다. UN은 「생태계 복원 10개년(2021~2030)」을 통해 10년간 생태복원에 집중할 것을 천명하였고, 생물다양성협약(CBD)은 2030년까지 훼손된 생태계의 30% 복원을 제시하였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Nature-Positive”달성을 위해 자연을 회복하고 양(+의) 상태로 되돌려 지구의 회복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녹색복원” 개념을 도입하고 산림·해양·습지·정주지 생태복원사업 확대와 생태복원지역의 자연공존지역(OECM)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 선진 외국은 녹색복원을 통해 생태계 회복과 생태관광,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이미지 개선 등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9백만㎡ 쓰레기 매립장인 프레쉬 킬스를 복원하여 생태과학과 예술 프로젝트를 개최하는 곳으로 변모시켰다. 영국 에덴 프로젝트도 폐 채석장을 식물원과 공원으로 바꾸어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정원 문화를 확산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네덜란드 오스트바르더스플라센은 1960년대 조성된 간척지를 시민제안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야생동물이 뛰노는 초지와 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생태관광에 기여하고 있다.
- 전북에서도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자연의 보전·복원과 생태자원의 현명한 활용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된 복원사업은 환경부 국가예산 보조사업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따라서 사업 규모가 작고, 생태환경 복원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전북의 생태환경 여건 반영에 한계가 있고, 생태계 연결성 향상과 지역사회 파급효과를 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의 녹색복원은 협의의 생태복원을 넘어 광의의 녹색복원을 지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생태환경 복원, 생태경제 창출, 지역사회 회복을 목표로 두고자 한다. 추진과제로는 소규모 마을단위의 점적 복원, 지역간 연계를 위한 선적 복원, 대규모의 광역적이고 융합적인 복합 사업을 위한 면적 복원의 과제를 제안한다. 특별히 익산 왕궁처럼 대규모 생태훼손지 복원을 통해 연속생태계 복원과 생태경제 창출, 지역사회 참여의 시너지 효과가 큰 곳을 선도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녹색복원 지원예산의 확대와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키워드 Green restoration, Degradation area, Natural capital, Ecological economy, Community recovery

전북특별자치도 생태·환경자산 가치 창출과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녹색복원 당면과제 제안

1 산업화와 도시성장에 따라 우리나라와 전북의 생태·환경자산은 지속적으로 감소

- 세계적으로 산업화 추진과 도시성장 가속화에 따라 산림·습지 등의 자연공간이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생물다양성과 생태·환경자산이 감소하고 있음
 -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산업화 확산에 따라 도로·철도·산업단지·항만·도시 등의 개발사업 추진, 그리고 에너지 개발과 농업지역 확대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야생동식물의 멸종이 가속화되고 있음
 - 세계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¹⁾에 따르면 약 100만 종의 동식물이 수십 년 내에 멸종할 것으로 보고 했으며(양서류는 44%, 해양 포유류는 33%가 멸종 위기), 세계자연기금(WWF)은 1970년 이후 전 세계 야생동물(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및 어류 개체군 규모)의 3분의 2가 감소했다고 발표함
 - 생물다양성 감소와 산림, 습지, 하천 등 자연공간의 감소는 지구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하고 환경의 지속 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약화시켜 결국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함
- 우리나라는 1950년대 이후 단기간에 선진국에 오르는 과정에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거치며 생태·환경자산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함
 - 도시화를 증가(2020년 92%) 지난 30년간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은 2~3배 증가했으나 산림과 농경지는 감소하고 있음(환경부, 2021)
- 전북 지역도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새만금 개발 등의 사업 추진으로 지난 30여 년간 산림과 농업 및 습지 등 자연지역은 감소한 반면 도시지역은 증가함
 - 토지피복지도 분석 결과 198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후반 사이 전북의 산림과 농업지역은 약 2.34% 감소하고 시가지·건조지역은 4.04% 증가함(천정윤 외, 2022)



[그림 1] 우리나라(좌)와 전북(우)의 도시지역(시가지·건조지역) 증가와 자연지역(산림·농지·습지) 감소 경향

자료: 환경부(2021); 천정윤 외(2022)

전북특별자치도 생태·환경자산 가치 창출과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녹색복원 당면과제 제안

2 국제사회와 우리나라는 생태·환경자산의 복원을 위한 구체적 목표 수립

- 최근 국내외에서는 훼손된 생태·환경자산을 양적으로 늘리고, 질적으로 회복하여 인류사회가 자연과 함께 지속가능한 삶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생태환경 복원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UN은 '19년 「생태계 복원 10개년(2021~2030)」을 발표하여 2020년대의 10년간 인류사회 모두가 생태계 복원에 집중적 노력을 추진할 것을 천명함
 - 생물다양성협약(CBD)²⁾은 '20년 쿤밍-몬트리올 GBF³⁾ 2030 Target 2번을 통해 훼손된 모든 생태계(육상, 하천, 해양, 연안)의 최소 30% 복원 목표를 제시함
 -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은 '22년 “Nature-Positive” 달성을 위해 자연을 회복하고 양(+의 상태로 되돌려 지구의 회복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함
 - 우리나라는 범부처 국가계획을 통해 다양한 생태계의 훼손지에 대한 양적인 복원 확대와 복원사업 추진 이후 주민참여 관리 등 질적 회복을 목표로 제시함
 -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생태훼손지역 보전·복원 465ha('17) → 1,200ha('30) → 2,000ha('40)
 - ▶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 산림·해양·습지·정주지 등 흡수원 복원 및 도시숲 등 신규 흡수원 확대
 - ▶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통해 생태복원지역 확대와 관리체계 개선, 생태복원지역의 자연공존 지역(OECM)⁴⁾ 등재
 - 환경부는 생태복원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녹색복원” 개념을 도입하고, 법제화를 통해 생태복원 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 녹색복원: 국토공간을 대상으로 질적, 양적으로 자연환경의 회복(Recovery)을 촉진함으로써 국토의 건강성과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도모하는 과정(환경부, 2021)
 -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2.1 시행)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개념과 계획 수립, 추진실적 평가, 유지관리 방안을 법제화



[그림 2] 녹색복원의 개념적 정의와 지향점

자료: 환경부(2021)

2)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3)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4) 자연공존지역(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장기간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생태·환경자산 가치 창출과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녹색복원 당면과제 제안

3 각국은 녹색복원을 통해 훼손된 생태계 복원과 지역사회 경제가치를 창출

- 세계 각국은 지역의 골칫덩어리였던 훼손지에 대한 녹색복원 사업 추진을 통해 생태계 회복뿐만 아니라 생태관광과 휴식·산책공간 증진, 나아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이미지 개선 등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 쓰레기 매립장을 도시 공원으로: 뉴욕 프레쉬 킬스 파크(Fresh Kills Park)⁵⁾
 -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큰 매립지 중 하나인 '프레쉬 킬스 매립지'를 폐쇄하고 30년간 캠프(폐기물 덮개) 및 녹지 조성, 예술프로젝트, 페스티벌 등의 사업을 추진함
 - 서식처 복원 외 오염된 도시 이미지를 깨끗한 이미지로 바꾸는데 성공함
- 폐채석장을 친환경 식물원으로: 영국 에덴프로젝트(Eden Project)⁶⁾
 - 영국 폐석산을 '식물원' 및 '공원'으로 조성시킨 사례로 'ETFE Foil'⁷⁾ 소재의 돔 형식 건축물이 세계 전역에 벤치마킹 됨
 - 원에 커뮤니티 및 'Big Lunch' 등 '가드닝' 문화를 주민이 주도하고 있음
- 폐철도를 선형 공원으로: 뉴욕 하이라인 파크⁸⁾
 - 맨하탄에 방치된 2,333m 철도를 '선형(Line) 공원'으로 복원시킨 사례로 사업의 시작이 주민 공동체 'Friends of the High Line'에서 시작하고 있음
 - 도심속 공원, 자전거 이용시설의 공급으로 주변에 약 20억 달러 이상의 부동산 개발이 촉진되었으며 연간 방문객은 800만명에 이르고 있음
- 철새 먹이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존 : 홍콩 마이포 습지⁹⁾
 - 무분별한 도시개발 압력으로부터 철새 주요 먹이 공급지인 '마이포 습지'를 보호한 사례로 인간과 생태계 공존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임
 - '람사르 습지구역' 지정 외 홍콩 전통 새우양식업 '게이와이' 보존을 통해 철새의 먹이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습지 환경을 유지하고 있음
- 간척지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복원 : 네델란드 오스트바르더스플라센¹⁰⁾
 - 네델란드 '오스트바르더스플라센'은 1960년대 조성된 간척지를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조류 탐방이 가능한 습지 생태계로 복원시킨 사례임
 - 복원은 '인간 정착 이전의 생태계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멸종된 종(오룩스, 타르판)을 대신하는 대리종 소(Heck cattle)와 말(Konik)을 도입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78종의 새들이 발견되는 국제 조류 서식처가 됨

5) 미국 프레쉬킬스 파크 홈페이지 내용 발취 : <https://freshkillspark.org/>

6) 영국 에덴 프로젝트 홈페이지 내용 발취 : <https://www.edenproject.com/>

7) 마모 및 방사선 저항성이 우수한 반투명 플라스틱 대체 소재

8) 랜스케이프 퍼포먼스 : <https://www.landscapeperformance.org/case-study-briefs/high-line>

9) 마이포습지 보존 위원회 'WWF 홍콩' : <https://www.wwf.org.hk/>

10) 'European Experiments in Rewilding' : Oostvaardersplassen. <https://rewilding.org/what-is-rewilding/>

전북특별자치도 생태·환경자산 가치 창출과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녹색복원 당면과제 제안

[표 1] 주요국의 녹색복원 추진사례

구분	뉴욕 프레스쉬 킬스 파크	에덴 프로젝트	뉴욕 하이라인 파크	마이포 습지	네델란드 간척지	
위치	미국 뉴욕 (Staten Island)	영국 콘월 (Cornwall)	미국 뉴욕 (맨하탄)	홍콩	네델란드 오스트바르더스플라센	
규모	9,514,159㎡	121,405㎡	2,333m	15,000,000㎡	56km ²	
조성일	2012(Schmul Park) 2023(North Park)1)	2001 (식물원 개관일)	2009 (미트패킹 구역 첫 오픈)	1995 (람사르습지 지정일)	1960년(간척지 조성) 1989(자연보호구역 지정)	
복원 대상	쓰레기 매립장	폐 채석장	폐 철도	갯벌 습지	간척지의 생태환경 복원	
복원 내용	하드 웨어	캠핑(폐기물 덮개) 공원녹지 조성	식물원, 공원녹지 복원, 산책로 조성	고가 공원, 자전거 시설	습지공원 및 방문자센터, 탐방시설	인포메이션 센터, 조류관찰대
	소프트 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 프로젝트 생태 과학 연구 현장교육, 모바일랩 맹금류(Raptor) 페스트 주민 생활(요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중립(자가발전) 운영 식물전시 및 가든 교육 결혼식 및 장소임대 학위지원(조경, 원예) Eden Sessions Festiv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여점 작품전시 친환경 자연순환 시스템 환경 어린이 교육 무료 건강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람사르습지 지정 전통 새우 양식 보존 (게이와이) 생물 다양성 보존 생태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람사르습지보호구역 지정 멸종 대리 동물 복원 (소, 말) 생태 탐방 프로그램
복원 효과	물리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 토양오염지 복원 휴양 체육 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 석산 경관 복원 구역 전체의 녹지화 서식지 기능의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심 속 선형 공원 조성 도심 속 자전거 길 신설 지하철 접근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습지와 철새 먹이 보존 새우 양식 환경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78종 새들의 서식처 최소한의 탐방시설 구축
	경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 창출 부동산 가치 증가 메탄가스 도시 수익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예 관리 일자리 창출 관광 수입 지역 연계관광 수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개발 촉진 (20억달러) 세수입 증가 (연간 6,500만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식업 수입 창출 일자리 창출 지역 연계관광 수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태관광 및 생태교육 분야 일자리 창출 지역 연계관광 수익
	사회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커뮤니티 및 웰빙의 장으로 변모 오염 지역이미지 탈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ETFE foil2)을 사용한 친환경 건축설계 선도 뉴 에덴 조성(스코틀랜드, 칠다오, 코스타리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800만명이 찾는 뉴욕의 명소 조경 건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 자연환경 및 문화 유산의 계승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대한 성공모델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멸종위기 거대동물의 개체수 유지 유럽연합 생태네트워크 'Nature 2000' 참여
주민 참여	커뮤니티가든 및 도시농업(시민 공간) 가드닝 실무, 봉사	지역 가든 파티 (Big Lunch) 추진 친환경 원예 문화 선도	주민 주도 복원 (주민 단체 'Friends of the High Line' 시작)	자연환경 유지관리 자원봉사, 관광업	지역민 주도의 생태관광 및 생태환경 모니터링	
현황						

1) Schmul Park는 프로젝트 자원으로 완성한 첫 번째 공원, North Park는 프레스쉬킬스 구역 내 완성된 첫 번째 공원임
2) 마모 및 방사선 저항성이 우수한 반투명 소재로 기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고강도 소재

전북특별자치도 생태·환경자산 가치 창출과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녹색복원 당면과제 제안

4 전북의 복원사업은 소규모 국공유지에 국한된 사업으로 복원효과 창출에 한계

- (정책)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생태·환경 분야 주요 추진전략과 과제를 통해 생태·환경 자산의 보전·복원과 가치 창출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함
 - 「전라북도 환경보전계획(2021~2030)」: “자연을 보전·복원하고 생태자원의 가치가 높은 전라북도”를 자연생태분야 목표로 제시함(전라북도, 2021)
 - ▶ 광역생태축과 생태계 우수지역 개념 제시, 생태하천 복원사업, 블루카본 조성(갯벌생태계 복원, 연안식생 조림)을 과제로 제시
 - '24.1월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두고 12대 전략의 하나로 “생태자원의 현명한 활용”을 제시함(전북특별자치도, 2023)
 - ▶ 생태환경의 복원과 보전 및 친환경 이용을 과제로 제시
- (사업) 그러나 실제 전북에서 추진되는 녹색복원 사업은 환경부 국가예산 보조사업 중심으로 대부분 사업 규모가 작고, 생태기반환경의 복원과 생물종 서식지 조성, 생태공간 조성 등 “생태환경 복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도시생태축복원사업은 약 5만㎡,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은 약 1만㎡ 규모

[표 2] 전북의 주요 녹색복원 사업 추진 현황

사업명	주요내용	전북 추진 현황	
		대상	기간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	• (대상) '환경 훼손'지의 생태계 복원 • (유형) 산림·녹지 / 습지 복원 • (면적) 5만㎡ 이하 • (기간/사업비) 2~3년 / 60억 내외 • (내용) 환경시설물, 생물다양성증진 등	고창읍성	'21~'24
		남원 향교공원	'22~'25
		익산장점마을	'22~'25
		익산 목천포천	'24~'26
생태하천 복원사업	• (개념) 수질 오염, 서식 환경이 훼손 또는 교란된 하천의 건강성 회복 • (사업비) 60억 내외(균특지방이양사업) • (추진주체) 광역지자체, 지자체 • (내용) 하천 생태계정비, 시설물 공급 등	무주군 동방천	'21~'25
		임실군 도인천	'22~'26
		고창군 선운천	'17~'24

자료: 전북특별자치도(2024), 내부자료

- (시사점) 따라서 국가보조사업과 국공유지에 국한된 사업추진으로 전북의 생태환경 여건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소규모의 사업 추진으로 생태계 연결성 향상과 지역사회 파급효과 창출 등 녹색복원 효과를 내는 데 어려움 발생
 - 환경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등 부처별 생태복원 사업은 다양하나 독립적인 사업 선정과 지원, 사업별 대상지역(생태계 유형) 차이, 지원 예산규모 한계
 - 국공유지 중심, 사유지가 최소화된 사업으로 소규모 제한된 부지에서 사업이 추진되어 당초 목표한 생태축 연결성 확보 등 생태계 기능 회복에 한계
 - ▶ 예: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선정 평가시 평가 항목으로 사업추진의 용이성과 부지 확보 측면에서 국공유지의 면적 비율을 참고함

전북특별자치도 생태·환경자산 가치 창출과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녹색복원 당면과제 제안

- 관 중심 사업 추진과 민간(지역주민, 지역기업) 참여 지역 여건 반영과 사업 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내는 데 한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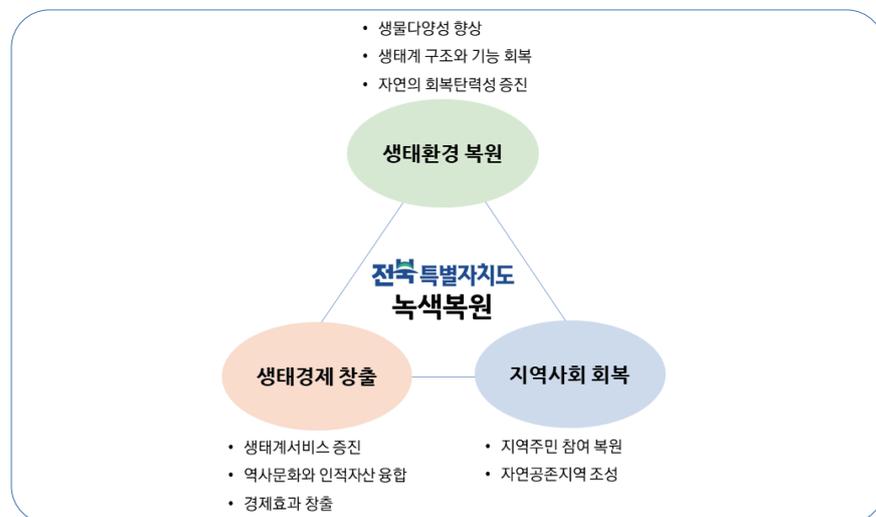
[표 3] 주요부처 녹색복원 관련 사업

부처	생태계 유형	사업명
환경부	자연환경	자연환경복원사업, 백두대간 등 생태축 훼손지 복원,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도시소생태계 조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습지보호지역 훼손지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
	물환경	생태하천 복원사업, 수변녹지조성사업(수계기금)
산림청	산림·도시	산림생태 복원사업,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산림치유 인프라, 수목장림, 도시숲 조성, 생활림 조성(도시숲, 경관숲 등))
해양수산부	연안·해양	해양서식처 복원, 갯벌·식생복원사업, 인공어초사업(수산자원증대)

5

전북특별자치도 녹색복원의 추진목표 확립과 정책방향 전환 필요

- (추진목표) 전북특별자치도의 녹색복원은 생태환경의 복원에만 초점을 둔 기존의 협의의 생태복원을 넘어 광의의 녹색복원, 즉 복원을 통해 생태·환경자산이 제공하는 생태경제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회복에 기여해야 함
 - (생태환경 복원) 생태훼손지의 생물다양성 향상과 생태계 구조와 기능 회복을 통해 자연의 회복탄력성을 증진
 - (생태경제 창출) 생태·환경자산의 복원을 통한 생태계서비스 증진과 지역의 역사문화 및 인적자산을 융합한 경제효과 창출
 - (지역사회 회복) 지역주민의 참여하여 생태계를 보전·복원하고 지역사회가 녹색복원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자연공존지역 조성



[그림 3] 전북특별자치도 녹색복원 목표

전북특별자치도 생태·환경자산 가치 창출과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녹색복원 당면과제 제안

- (정책 방향) 도내 녹색복원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전북자치도와 시·군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함
 - (사업발굴) 전북에서 녹색복원이 필요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기 위해 도와 중앙부처 및 관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시·군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시·군 발굴 사업에 대해 국가예산사업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 ▶ 환경부는 지역수요 기반 자연환경복원사업 발굴·추진을 위해 “자연환경 훼손지역 발굴 지자체 수요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관련 국가예산사업의 추진시 가점 부여
 - (토지활용) 녹색복원의 생태복원 효과 향상과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유지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 ▶ 자연환경보전법에 녹색복원 사업의 사유지 활용과 지역주민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항 마련 필요
 - (주민참여) 복원사업 추진 과정과 복원 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지역주민이 복원사업에 참여하는 활동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로 지원
 - ▶ 녹색복원사업과 연계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지원을 위해 국가와 도 및 시·군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예산 점진적 확대 필요
 - (기업참여) ESG 경영과 자연자본공시(TNFD) 차원에서 지역의 기업들이 녹색복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및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 (홍보사업) 전북에서 추진하는 녹색복원 정책과 사업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관련 산업과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세계 녹색복원 엑스포 등 행사 개최
 - (부처협력) 대규모 녹색복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생태복원 관련 부처간(환경부-국토부, 환경부-산림청, 환경부-해수부 등) 연계·협력사업 추진
 - (예산확대) 지역의 녹색복원사업 추진 확대를 위해 중앙부처는 녹색복원 관련 사업과 예산을 확대
 - ▶ 2030 국가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의 보호지역 30%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녹색복원 관련 사업과 예산 확대

6 전북특별자치도 녹색복원 추진과제와 선도과제 제안

- (추진과제) 전북의 지역적 특성과 차별성을 반영하기 위해 공간 유형과 복원 형태를 조합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해야 할 녹색복원 과제를 제안함
 - 소규모의 마을단위 점적 복원사업, 중규모의 지역간 연계를 위한 선적 복원, 대규모의 광역적이고 융합적인 복합 사업을 위한 면적 복원으로 구성
 - 기초자료 구축, 연구·교육공간 조성, 주민 및 기업참여 활동, 생태경제 창출, 국제인증과 홍보행사 등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 생태·환경자산 가치 창출과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녹색복원 당면과제 제안

[표 4] 전북특별자치도 공간 유형과 복원 형태에 따른 녹색복원 추진과제 제안

공간 유형 복원 형태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점적 복원 (소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권 생태공원 조성(거점녹지) 생태섬 조성(연결성 증진) 폐석산 복원(익산시, 남원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둔방 복원(중부평야권) 연안습지 복원(서부연안권) 고산습지 복원(동부산악권) 수변생태벨트 조성(만경강·동진강·섬진강·금강)
선적 복원 (중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수 조성 미세먼지차단숲, 기후변화대응숲 조성 생태축(생태통로) 복원 그린웨이 조성(띠 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형 하천 복원(하천축) 광역생태축 연결·복원(산림-하천)
면적 복원 (대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 녹색복원(연속생태계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 복원
기반조성 및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자료) 전북자치도 광역 생태·환경자산 지도구축 (연구·교육) 자연환경복원연구센터 조성·운영 (주민참여) 생태복원 및 생태보전, 생태관광분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생태경제) 생태관광, 생태교육, 생태먹거리, 생태군즈 개발 (기업참여) ESG 민간기업 참여 기반 생태복원사업 추진 (국제인증)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자연공존지역(OECM) 지정 (홍보행사) 국제 녹색복원 컨퍼런스 및 엑스포 개최 	

○ (선도과제) 대규모 훼손에 따라 생태·환경자산 가치 하락이 심각하고, 생태복원을 통한 생태경제 창출과 지역사회 회복의 시너지 효과가 큰 곳은 국가와 도 및 시·군, 민간이 협력하여 녹색복원 선도 모델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함

- (익산 왕궁) 집단축사 운영에 따른 대규모(179만㎡) 훼손지로, ① 산림-농지-하천(주교제-옹호제-학평제)의 연속생태계 복원, ② 생태탐방과 복원과정 전시 및 생태체험교육의 생태관광 추진, ③ 지역주민과 민간기업 참여로 지역사회 회복과 생태경제 창출 사업 추진 가능

▶ 환경부 자연환경복원사업 시범사업으로 선정(23.5)되어 단계적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예정



[그림 4]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비전, 목표, 추진과제 예시

자료: 익산시(2024), 내부자료

전북특별자치도 생태·환경자산 가치 창출과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녹색복원 당면과제 제안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2020)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관계부처 합동 (2023)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2023)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년)

익산시 (2024) 내부자료

전라북도 (2021) 전라북도 환경보전계획(2021~2030)

전북특별자치도 (2023)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전북특별자치도 미래전략 수립), 요약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2024) 내부자료

천정윤 외 (2022) 전라북도 자연환경 훼손지역 녹색복원 추진방안 연구

환경부 (2021) 국토환경 녹색복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

Cohen-Shacham, E., Walters, G., Janzen, C. and Maginnis, S. (eds.) (2016) Nature-based Solutions to address global societal challenges. Gland, Switzerland: IUCN. xiii + 97pp.

IPBES (2019) Global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Brondizio, E. S., Settele, J., Diaz, S., Ngo, H. T. (eds). IPBES secretariat, Bonn, Germany. 1144 pages. ISBN: 978-3-947851-20-1

CBC, 150 million tons of reeking garbage now holds up a park. <https://www.cbc.ca>.

미국 프레쉬킬스 파크 홈페이지. <https://freshkillspark.org>

영국 에덴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s://www.edenproject.com>

랜드스케이프 퍼포먼스 홈페이지. <https://www.landscapeperformance.org>

홍콩 마이포습지 보존 위원회 'WWF 홍콩'. <https://www.wwf.org.hk/>

'European Experiments in Rewilding' : Oostvaardersplassen. <https://rewilding.org/what-is-rewilding>

iSSUE
BRIEFING vol.311



발행인_이남호 발행처_전북연구원

※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